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결정요인 분석: 충남 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수영^{1*} · 권용대²

¹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²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non-farming income activities of female farmers: Focused on female farmers of Chungnam area

Soo Young Ahn^{1*}, Yong Dae Kwon²

¹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Kongju 32626, Korea

²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Received on 5 August 2015, revised on 24 August 2015, accepted on 25 August 2015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determinants of non-farming income activities of female farmers, and presenting how to support their participation in non-farming activities.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ve analysis whose subjects are female farmers in the Chungnam area indicates that human and economic capital variables that can predict non-farming income activity participa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re persons at the age of 40s to 50s and female farmers who returned to the rural areas. Farming characteristic variables are households that receive subsidiary and participate in two different types of farming whose main farming is rice. The female farmers who spend longer hours doing household chores participate in non-farming income activities more actively. In terms of policy and on-site response variables, the interest in farming and farming businesses shows positive relation, and that of farming and community organization participation presents negative relation. Thes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local government must present the policy that can select non-farming income activity participation groups strategically.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community centered-non-farming income activities, and to expand or make laws to support female farmer's participation in non-farming activities.

Key words : Female farmers, Non-farming income activities, Human and economic capital, Farming characteristics, Policy and on-site Response

I. 서론

오늘날 농업생산 활동을 통한 소득만으로는 농가의 생활비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외소득 활동은 농업소득만으로 농가경제의 안정화가 어려워지면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왔다.

농외소득 활동은 빈곤 해소, 농업·농촌 자원의 부가가치 증진을 통한 농가의 소득구조 개선, 일자리 기회 확대와 같은 소득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장기간 침체 상태를 벗어

나지 못한 농업소득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성장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참여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농가의 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농업소득 비중을 크게 앞서고 있다. 2013년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은 전국평균 15,705천원(61.0%)으로 농업소득 10,035천원(39.0%)보다 5,670천원 많아 22.0%나 높았다. 특히 충남은 농가의 농외소득 비중이 63.6%로 전국 평균보다 2.6% 높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KOSIS, 2013).

우리 농촌 경제는 농업인구의 과소화와 노령화, 영세한 영농 규모 등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농촌경제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820-0260

E-mail address: sociology@hanmail.net

현실에서 여성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는 농가의 추가적인 소득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충남도 15세 이상 농업 주종사자 가운데 여성농업인은 2013년 116,383명으로 52.5%를 차지한다(KOSIS, 2013).

대부분의 정책은 지자체 단위에서 집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접근도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 보다는 지자체가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즉 농외소득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거나 제도적으로 정책 근거를 마련하는 접근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지방 정부의 여성농업인 지원 정책은 적절한 정책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해당 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적 지연이 발생한다. 여성농업인 대상 농외소득 지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 어떤 특징을 가진 여성농업인을 정책 대상으로 선택 또는 선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분석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도 여성농업인 대상 농외소득지원 활동 추진을 어렵게 한다.

이런 이유로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외소득활동 참여 수요에 대한 분석적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남 지역 만19세 이상~69세 이하 여성농업인(최소 3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주종사자)이다. 자료의 표집은 먼저 조사지역과 연령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모수(母數) 안에서 단순무작위표집을 실시하였다. 조사의 표집단위는 가구이고 해당 가구에 여성농업인이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더 많이 농사를 짓는 1인을 조사대상하여 378개의 응답을 회수하였다.

조사지역은 충남 도내 시·군 가운데 세대수 대비 농가 고밀도 지역 중에서 여성농업인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여성농업인 정책의 현장 추진체인 여성농업인센터가 소재한 서천군, 예산군, 홍성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단계는 2014년 4월 16일과 4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질문내용과 선택지를 수정하였고

Table 1.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구분		내용
조사대상		여성농업인(주종사자)
조사연령		만19세 이상~69세 이하
조사 사례수		378명
조사지역		서천군, 예산군, 홍성군
표집절차		단순무작위표집
조사 단계	예비조사	집단조사/4월 16일, 4월 21일
	본조사	1:1 면접조사/4월 28일-5월 20일

본 조사는 2014년 4월 28일~5월 20일 사이에 면접원의 개별 농가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농외소득활동과 여성농업인의 참여

오늘날 농촌 및 농업생산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육체·근력 노동 위주의 농업노동의 성격이 최근 들어서는 경영·기술·상업 노동으로 질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는 부가가치 산출 영역의 증대, 농업생산의 성과 공유의 측면에서 경제활동 참여자, 경영자로서 여성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Bertolini and Ansaloni, 2013; Jeong et al., 2013, Kawate Tokuya and Anzai Satoko, 2013).

6차 산업화로 대표되는 농업의 부가가치화가 강조되고 여기에 여성농업인의 소득동기가 적극적으로 결합되면서 여성농업인이 개입할 수 있는 농외소득 활동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Jeong, 1997; Kim et al., 2001). 특히 농촌관광, 마을개발사업, 농산물 가공식품 분야 등에서 여성농업인이 보유한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도농교류 사업에서도 도시 주부와 네트워크 파트너로서 활발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Kang, 2012). 이처럼 최근 농업생산의 패러다임이 규모화 접근 위주에서 부가가치 창출 활성화로 바뀌면서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009년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 특례조항(제13조)을 두어 여성농업인 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활동에 관해 자금·인력·기술·교육·직거래 장터 등의

우선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계획」에서 전문 여성 농업경영 인력 육성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략의 주요 내용은 여성농업인 전문역량 교육, 소규모 및 공동창업 활동지원, 6차 산업화 연계나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운영 등의 현장중심 정책지원 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두고 있다(MAFRA, 2010)

선행연구 논의의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h 등(2001)은 농외소득 정책이 기본적으로 겸업농에 대한 대책이지만 전업농이나 고령농에게도 보완적 의미를 가지며 마을 단위의 농산물 가공, 그린투어리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정책 해법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외소득 활동 참여는 농가의 생계전략의 문제이지만 보다 넓게는 농촌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농가의 농외소득 활동은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농촌지역 발전 프로젝트에 농외소득 정책을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농가 구성원들의 새로운 겸업 활동을 촉진하는 조직적인 학습, 내실 있는 창업보육과정 등을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Jeong(1997)은 30대 연령층,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농가 여성들이 농업 보다는 농외 취업이나 자영업, 전문 직종에 보다 높은 참여 의사를 나타냈는데 그 원인은 농촌 지역이 혼주화(混住化) 되면서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기회가 크게 증가하여 농가 여성의 노동력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Kang(2009)은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가사일, 마을일 수행에 대한 기회비용 영향 요인을 토빗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젊고 학력이 높은, 공동경영주나 전문경영자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자신들의 노동력 기회비용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농촌사회의 강한 공동체적 특성과 고령화된 농촌에서 젊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부녀회 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가 도시보다 활발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Kim 등(2001)은 여성농업인의 소득을 추정하는 연구에서 연령, 생산자 조직(작목반 또는 농협) 가입 여부, 가구의 경작 규모가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실증하였다. 여성농업인의 농외 취업은 연간 총소득합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농가소득을 변화시킬 만큼 농외 취업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농촌의 새로운 유입 인력인 귀농·귀촌 여성의 농외

소득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는 소득 동기를 가진 귀농·귀촌 여성들의 현재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이를 어떤 정책 방안을 동원하여 해결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것은 농가의 가계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농가 경제의 합리화 과정이다(Jeong, 1997). 현재 가구주와 함께 유입된 귀농·귀촌 여성의 증가는 농촌사회의 새로운 인적자원인면서 귀농·귀촌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에 주요 동인이 된다. 귀농·귀촌인들은 이주 정착단계에서 농업소득이 충분치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 귀농·귀촌인들은 다양한 소득동기를 가지게 되며 이 과정에서 농업 이외의 부가적인 경제활동을 병행하게 된다(Park et al., 2013).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의 농업인지원 정책은 주로 가구가 정책 단위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구주, 즉 남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Jin and Park, 2012). 그러다 보니 동시에 해당 정책과 사업에서 여성농업인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2. 분석 자료의 일반적 특성

연구의 종속변수인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부는 농외소득 활동 ‘하지 않음’ 58.2%, ‘하고 있음’ 41.8%의 분포를 나타냈다.¹⁾

분석에 투입한 여성농업인의 집단 특성을 설명변수 영역 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적·경제적 자본 요인을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농업인 가운데 원주민 비율은 80.2%로 귀농·귀촌인(19.8%)의 4배에 달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전체 응답자의 52.1%를 차지하였고 연령분포는 30대 이하-60대까지 25% 내외에서 대체로 고르게 표집되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400만원 가량 많은 연간 3,800만원이었다. 그렇지만 본의 명의의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비율이 60%를 초과하여 농가의 소득규모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권한은 정률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둘째 영농특성 요인의 경우 전업농가(69.3%), 보조농업인·가족종사자(55.6%), 논농사(38.9%) 비중이 높았으며 영농경력은 평균 16년이고 1일 평균 노동시간은 농업

1) 농외소득활동 참여 형태는 공동소득사업 참여가 11.4%로 가장 높았고 일당을 받는 품삯일 9.3%, 시간제 아르바이트 9.3%, 판매활동 6.1%, 기업체에서 일함 5.8%의 차례를 나타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data analysis

구분	분석 변수		명	%	
종속 변수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부	하고 있음(1)	158	41.8	
		하지 않음(0)	220	58.2	
설명 변수	귀농·귀촌 여부	원주민	303	80.2	
		귀농·귀촌인	75	19.8	
	교육수준	초졸 이하	31	8.2	
		중졸	124	32.8	
		고졸	197	52.1	
		대졸 이상	26	6.9	
	인적·경제적 자본 요인	연령구간	30대 이하	89	23.5
			40대	99	26.2
			50대	97	25.7
			60대	93	24.6
	가구소득 (연간)	3000만원 미만	66	17.5	
		3000~3999만원	131	34.7	
		4000만원 이상	181	47.9	
		본의명의 자산여부	M(Std)	3800.93 (1144.682)	
	영농특성 요인	영농형태	전업농	262	69.3
			겸업농	116	30.7
		영농지위	경영주 (농업·공동)	168	44.4
			보조농업인·가족종사자	210	55.6
		영농작목	과수	77	20.4
			채소	51	13.5
축산			103	27.2	
논벼			147	38.9	
영농경력		M(Std)	16.20(9.331)		
1일 노동시간		농업노동	6.49(1.857)		
	가사노동	3.01(.943)			
정책·현장 반응	농업·농촌사업 관심도	3.87(.701)			
	농업·마을조직 참여도 (마을회·생산자조직 등)	3.83(.648)			
전체			378	100.0	

노동 6.5시간, 가사노동 3시간으로 여성농업인은 이중노동 부담을 안고 있었다.²⁾ 끝으로 정책 및 현장 반응 요인(5점 척도)은 농업·농촌사업 관심도 3.87점, 농업·마을조직 참여도 3.83점으로 여성농업인들은 농업·농촌사업, 농업·마을조직(생산자회, 마을회)에 일정한 관심과 참여를 나타냈다.

2) 1일 노동시간 중에서 농외소득에 투자하는 시간은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고 농외소득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을 종속변수로 설계하였다.

3. 농외소득활동 참여 결정요인 회귀분석결과

여성농업인의 인적·경제적 자본, 영농특성, 정책 및 현장 반응도를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농외소득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가. 인적·경제적 자본에 따른 영향요인

인적·경제적 자본 모형의 우도비 전체 통계량은 468.864로 유의수준 $p < .001$ 안에서 회귀모형이 적합하게 추정되었다(Table 3).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대’와 ‘귀농·귀촌여부’로 연령구간은 정(+)의 관계, 귀농·귀촌 여부는 부(-)적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먼저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률(Exp(B))은 준거집단인 60대와 비교하여 40대는 2.213배, 50대는 1.876배 높아 40대를 주축으로 50대까지의 여성농업인들이 농외소득활동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였다. 반면에 귀농·귀촌인과 비교하여 원주민의 농외소득 참여 확률은 0.250배 낮았다. 요약하면 40~50대 여성과 귀농·귀촌 여성의 농외소득활동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이들 집단을 중심으로 정책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법임을 보여준다.

Table 3. Human and economic capital variables

농외소득활동 하고 있음(1)	B	S.E	Exp (β)
상수	.134	.393	1.144
교육수준(준거=중졸이하)	.104	.286	1.110
연령구간(준거=60대)			
-30대 이하	.231	.388	1.259
-40대	.753	.357	2.123*
-50대	.629	.322	1.876*
귀농·귀촌여부(준거=귀농·귀촌)	-1.385	.293	.250***
연간가구소득(준거=3,000만원이하)			
-3001~3,999만원	.437	.315	1.548
-4,000만원 이상	-.296	.334	.744
본의명의 자산여부(준거=없음)	.113	.232	1.120
-2 Log Likelihood	468.864***		
Cox & Snell R ²	.112		
Nagelkerke R ²	.151		

주 : * $p < 0.05$, ** $p < 0.01$, *** $p < 0.001$.

한편 인적·경제적 자본 요인 중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외 소득참여 여부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변수는 학력, 가구소득, 본의명의 자산 보유 여부이다. 즉 학력의 높낮이(중졸이하, 고졸이상)나 가구소득의 편차, 응답자의 자산 현황은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부와 독립적이었다.

나. 영농특성에 따른 영향요인

영농특성 모형의 우도비 전체 통계량은 178.420으로 모형이 적합하게 추정되었다(Table 4).

영농특성 요인 가운데 ‘영농형태, 영농지위, 영농작목, 가사노동시간’의 4가지 변수가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여부를 인과적으로 설명하였다. 인과관계를 설명하면 준거집단인 겸업농가, 보조농업인·가족종사자에 비해 전업농가, 농업·공동 경영주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률이 각각 0.001배, 0.033배 낮았다. 하지만 겸업농과 전업농, 보조농업인·가족종사자와 농업(공동) 경영주 간의 참여 확률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 영향력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영농작목별로는 논농사를 짓는 농가보다는 밭농사(채소) 위주의 경작을 하는 집단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률이 0.335배 낮았다. 가사노동시간은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였다. 1일 노동시간 중에서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긴 여성농업인일수록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률이 1.553배 증가하였다. 1일 노동시간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이 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농업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일 노동시간 총량에서 농업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짧은 여성농업인 집단에서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곧 가사노동시간이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참여시간으로 치환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즉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농외소득활동 참여에 있어 준비된 여분의 시간으로 작용하여 생업인 농업 노동시간과 구별되고 있다. 한편 영농기간의 길고 짧음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 요인이 아니었다.

정리하면, 농업이외 다른 일을 겸하는 여성농업인으로 경영주 보다는 보조적 영농지위를 가진 논농사 위주의 경작을 하는, 가사노동에 투자하는 시간이 긴 여성농업인들이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지자체에서 농외소득활동 참여 집단을 선택할 때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여성농업인의 영농특성 요인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 정책 및 현장 반응에 따른 영향요인

정책 및 현장 반응 모형의 우도비 전체 통계량은 506.468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앞선 두 모형에 비해서 우도비가 가장 컸다(Table 5).

분석결과 설명변수로 설정한 두 가지 측정 요인 모두 종속변수와 유의한 인과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설명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는 정책 관심도가 1.588배로 현장조직 참여도(0.658배)보다 설명력이 높았다. 한편 설명변수

Table 4. Farming characteristic variables

농외소득활동 하고 있음(1)	B	S.E	Exp (β)
상수	5.141	1.268	170.958***
영농형태 (준거=겸업)	-6.583	.961	.001***
영농지위 (준거=보조농업인·가족종사자)	-3.397	.669	.033***
영농작목(준거=논벼)			
- 과수	.553	.581	1.739
- 채소	-1.093	.493	.335*
- 축산	-.779	.597	.459
영농경력(준거=10년 미만)			
-20년 이상	.404	.491	1.497
-10~19년	.534	.618	1.705
농업노동시간(1일)	-.088	.142	.916
가사노동시간(1일)	.440	.205	1.553*
-2 Log Likelihood	178.420***		
Cox & Snell R ²	.588		
Nagelkerke R ²	.792		

주 : *p<0.05, **p<0.01, ***p<0.001.

Table 5. Policy and on-site response variables

농외소득활동 하고 있음(1)	B	S.E	Exp (β)
상수	-.521	.702	.594
농업·농촌사업 관심도	.462	.184	1.588*
농업·마을조직 참여도	-.419	.195	.658*
-2 Log Likelihood	506.468***		
Cox & Snell R ²	.019		
Nagelkerke R ²	.026		

주 : 1) 농업·농촌사업 관심도, 농업·마을조직 참여도는 5점 척도 (① 매우 낮음~⑤ 매우 높음)로 측정함.
2) *p<0.05, **p<0.01, ***p<0.001.

영향력의 방향은 농업·농촌사업 관심도는 양(+의) 관계를, 농업·마을조직 참여도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 대조를 이루었다. 정부나 지자체의 농업·농촌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률은 1.588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업·마을조직 참여도는 오히려 반대의 양상을 나타냈다. 생산자 조직이나 마을회 등에 참여가 활발할수록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률은 오히려 0.658배 낮아졌다.

정책 및 현장 반응 요인에 대한 인과분석 결과는 농촌 마을에서 농외소득활동 참여 수요가 어떤 인식을 가진 집단을 중심으로 확장 가능한지를 시사해 준다.

IV. 결론

본 연구의 의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여성농업인들이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는지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는 것이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귀농·귀촌여부, 영농형태, 영농지위, 영농작목, 가사노동시간, 농업·농촌사업 관심도, 농업·마을조직 참여도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계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참여 지원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서 검증한 계량적 분석결과를 지자체에서 농외소득활동 참여 집단을 정책적으로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을 가시화하였다. 이는 농외소득 동기가 잠재되어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집단인지를 구별해 내었다. 여성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주체의 발굴과 결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유통, 마케팅 전략, 기업관련 법률, 회계 관리 등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유망한 여성 농기업인을 발굴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성 농업인들이 기업가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 등 농업을 둘러싼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농촌 기업지원 정책에서 여성기업인들이 경제적인 부가가치의 창출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여성 리더의 발굴을 촉진하는 방안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

는 마을 공동 농외소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농업·농촌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가능성이 높았지만 농업·마을조직에 활발히 참여하는 여성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확률은 오히려 낮았다. 따라서 농업·마을 자치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을 정책 집단으로 유인하고 묶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농외소득활동은 농외 취업을 통한 임금소득, 자영에 의한 사업소득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지자체가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커뮤니티에 바탕을 둔 형태가 유효하다. 여성농업인 개개인의 소득 창출이나 경제적 지위 향상, 취업기회 확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특히 농촌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이 적합하다. 여성농업인들이 마을공동작업장, 마을기업 등의 공동 소득사업을 지원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마을공동 농외소득사업은 비단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 전체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명제로 일반화할 수 있다.

셋째, 여성농업인은 그동안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제적인 경제활동 주체임에도 농가의 소득산출 및 배분 구조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변인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것은 제도적 토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농외소득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의 제정이 풀뿌리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여성농업인이 처한 특성이나 정책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여성농업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에 특화된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은 농가의 열악한 소득구조를 개선하고 적정한 농가소득을 회복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Ansaloni L, Bertolini P. 2013. Italian institutional system and policies supporting SMEs and women's farms. International Seminar on women farmers:75-165.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JWP (Jeonnam Women's Plaza).
- Jeong EM, Park DS, Kim WT. 2013. Survey on the Korean Women Farmers, 2013.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Jeong KW. 1997. The structure of farm female labor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KREI (Korea Rural Economic

- Institute).
- Jin MS, Park SJ. 2012. Analysis of experiences of women upon turning to farming or farm villages: case of Jinan. *The Women's Studies* 83(2):275-297.
- Kang HJ. 2009. An Analysis of the Opportunity Cost of Korean Women Farmers.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31(6):63-77.
- Kang HJ. 2012. The changing role of women farmers and policy. *Gender Review* 27:52-58.
- Kawate Tokuya, Anzai Satoko. 2013.10.31. Social status and the support system of Japanese women farmers. *International Seminar on women farmers*:3-72.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JWP (Jeonnam Women's Plaza).
- Kim YO, Ahn SY, Jeong KN. 2001. Employment Type earnings outlook and policy development of women farmers. KWDI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al Service).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in 2013. Surve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n 2013*. Accessed in <http://www.kosis.kr> on 20 July 2015.
-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0. *Third Basic Plan for fostering Women farmers and Women fishermen*.
- Oh NW, Jeong KW, Choi KW, Kim ES, Kim TG. 2001. *Direction and strategy to increase non-farming income*.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Park SK, Jo KW, Jo AY. 2013. *Women upon Turning to Farming or Farm Villages, This solution is needed for the Jeonbuk settlement*. Issue Briefing 115. JDI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